

법정사 항일운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

조 성 윤*

1. 머리말

역사 속에 묻혀 있던 법정사 항일운동이 새롭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최근 들어 항쟁의 진원지인 법정사가 항일운동 사적으로 지정되어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지만, 활발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제 본격적인 자료 수집과 해석이 시작된 셈이다¹⁾.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가 수집되어 연구 자료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보존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에 활용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자료들은 경찰 자료 및 재판부의 문서들²⁾이고, 그밖에 불교계와 제주 지역사회에 남아 있는 몇몇 자료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탐라문화연구소장

1) 그 동안 나온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봉옥,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조명」 『제주도사연구』 4. 제주도사연구회, 1995.

임혜봉, 「제주 법정사 스님들의 항일투쟁」 『중문청년회의소 창립20주년, 해방50주년 기념학술대회 자료집』, 1995.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무장 봉기 연구」 같은 책.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연구」 『종교학연구』 15. 종교학회, 1996.

박찬식, 「1918년 중문지역의 항일운동」 『제주도』 99. 제주도, 1996.

권인혁, 「宗教界의 항일운동」, 『제주항일독립운동사』, 제주도, 1996.

박찬식, 「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성격」 『제주도연구』 22. 제주학회, 2002.

조성윤,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같은 책.

김창민, 「법정사 항일운동 가담자와 운동의 성격」 같은 책.

김정인, 「법정사 항일투쟁의 민족운동사적 위상」 같은 책.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분국,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1918./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1918./ 「정구용의 대구복심법원 판

들³⁾, 그리고 그 이후에 발간된 신문, 잡지 등에서 관련 자료들을 부분적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은 상당히 큰 한계를 안고 있다. 대부분 일제 당국에 의해 기록되었거나, 신문 잡지 등에 일제의 검열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기록으로, 항쟁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법정사 항일운동에 관한 연구가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자료가 발굴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장 크게 부딪치고 있는 문제는 문헌 자료가 앞으로 더 많이 발견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발견된다 하더라도 일제측의 경찰이나 재판부에서 기록한 것이거나 신문 잡지의 기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따라서 주제를 정리하고 좀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문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일제침략기와 해방 이후에 걸친 시기의 민간에 널리 퍼져 있는 구전(口傳) 이야기들을 수집하기 위한 조사작업이 필요하다. 기억에 의존한 증언은 때로는 왜곡되거나 비약이 심한 상태로 뒤섞여 있기도 하지만, 문헌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소중한 내용을 전해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건은 1918년에 일어났으므로 80년 이상 지난 사건이며, 당시에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관련자들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전해들었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도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층이어서, 그들의 기억을 더듬어 내는 것도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었다.

오래 동안 역사 연구에서 구술사(oral history) 자료, 즉 구술 증언(oral testimony)은 자료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기껏해야 문헌 자료의 부족함으로 매워주는 방증(傍證) 자료로만 유효성을 인정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구술 자료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나오고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단순히 부족한 사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통치 주체인 일본 제국주의 행정 기구가 남긴 공식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인식을 밑으로부터 살펴 볼 수 있는,

결문」, 1923. 6. 29./ 경상북도 경찰부, 『일제경찰극비본 폭도사편집자료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 1934.

3)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 2002./ 김석익, 『심재집』,

민중의 역사적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⁴⁾.

나는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해서 간단한 글을 발표한 뒤⁵⁾, 자료의 한계를 절감하였다. 특히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선도교(또는 보천교)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부정적인 생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헌 자료만으로는 도저히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따라서 좀더 풍부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 현장 조사를 통해 만난 사람들의 증언, 또는 기억을 듣고 기록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고, 2003년 8월부터 법정사를 중심으로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하였다. 면담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완결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면담 조사를 통해서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의 중간 보고의 성격을 지닌다.

2. 역사적 기억의 수집과 재구성

구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만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만나야 할 사람들은 대체로 두 그룹이다. 하나는 법정사 항일운동 관련 유족이며, 다른 하나는 법정사를 중심으로 관련자들이 거주하였던 지역의 주민들이다. 유족의 경우 항일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므로, 그들로부터 생생한 증언을 수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면담 과정에서 자료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증언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들이 옛날에 관련자들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내용과 사후에 학습된 내용—말하자면 1994년 「법정 항일운동사업추진회(法井 抗日運動事業推進會)」를 만들고 명예회복 청원서가 제출되면서, 그 이후에 관심을 갖고 듣고 배운 것—이 한데 섞여 있다는 점이다.

4) 윤택림,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2003.

5) 조성윤,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제주도연구』 22. 제주학회, 2002.

사회적 기억이 생산되는 과정에는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다. 첫 번째는 학계를 포함하여 공적인(public) 분야에서 나타나는 지배적인 기억(dominant memory)과 대항기억(counter memory) 사이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현대국가 체제에서 공적인 담론들과 생활문화에서 생성된 좀더 사적인 기억 사이의 관계이다. 과거에 대한 공적인 재현은 서로 다른 여러 기억들 중에서 끊임없는 경쟁을 통해 그 가운데 하나가 지배적인 기억이 되면, 다른 것들은 대항 기억이 되면서 기억의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⁶⁾.

1918년에 발생한 법정사 항일운동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항일운동으로 주목받게 되었음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70년 이상 기억의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었던 셈이다. 해방되던 1945년 이전의 공적인 기억, 즉 지배적인 기억은 어디까지나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규정되고 있었다. 경찰과 일본 제국주의 당국이 법정사 항일 운동을 진압하고, 가담자들을 체포하여 법정에 세워 형을 받게 하면서 내세운 죄목은 “정치변혁을 목적으로 다수가 공동으로 치안을 방해한 행위”였다⁷⁾.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 행위이므로 당연히 항일운동으로 파악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국가 변란을 일으킨 반란자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관련자의 유족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체제에 순응하면서 살려면 ‘변란 가담자’라는 낙인(labelling)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때문에 그 가족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항일운동 가담 사실을 나중에 태어난 집안 식구들에게 감추고 말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그 때문에 자신이 유족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일제 식민지 지배가 끝난 해방 이후에도 법정사 항일운동이 쉽게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운동의 주도 세력 중 하나로 알려진 증산교 계열의 선도교(仙道敎)가 일제의 주요 탄압 대상이었으며, 혹 세무민하는 종교로 알려져 있었다는 점과 1920년대의 보천교(普天敎)와 1930년대에 제주도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무극대도교(無極大道敎)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뒤섞이면서 신흥종교 신도들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해석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점이다. 선도교는 성립 초기부터 강한 반일적인 성향을 보였다. 조선

6) 윤택림, 같은 책, 46쪽.

7) 「鄭九鎔 控訴 判決文」(1923)

말기부터 일본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에 강하게 저항하고 서양문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일반민중들에게 곧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강조하였다. 일제 경찰은 당시 불교가 했던 역할은 축소시키고 보천교가 저지른 사건으로 파악하면서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왜곡시키는 요소들을 걷어 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선도교, 보천교, 무극대도교는 모두 증산교 계열의 종교로서 해방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일반 대중들에게는 물론 학계에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사종교, 또는 신흥종교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인식되어 왔다. 이것은 해방 이후 한국 정부의 기성 교단 위주의 종교 정책의 영향 때문이기도 했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유족은 물론 일반 마을 주민들의 경우에도 법정사 항일운동이 3·1운동처럼 애초부터 독립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에 의한 폭동 정도로 치부되었으므로 개략적인 묘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의해 들을 수 있지만, 어느 수준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것은 기억의 선택적 수용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된 기억을 듣고 싶다고 면담 대상자들에게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자신의 기억을 수면 위로 끌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끌어낸다 하더라도 왜곡된 부분들이 섞여 있어 때문에 실제 면담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자료로 받아들일지 판단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다.

그리고 연구자에 관련된 문제인데, 기존 연구자들이 간간히 후손들과 면담한 것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극히 부분적인 수준에서 그쳤을 뿐 인터뷰 결과를 충실하게 정리하여 면담록의 형태로 남겨 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면담을 통한 자료를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아직 시기상조이다.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은 관련자들의 후손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면담 기록을 자료집의 형태로 수집, 정리하는 작업이다. 그런 다음에야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작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일차 면담 과정에서는 법정사 성역화 추진위원회의 유족들 일부와 현재의 법정사 주지, 그리고 하원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 주민들과 만날 수 있었다. 주민들과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 가운데 하나는 기존 문헌 자료를 통해서만 좀쳐

럼 얻기 어려웠던 종류의 정보를 많이 얻어 낼 수 있었던 점이다. 기존 문헌이 대부분 일제 당국에 의해 작성된 것들이고, 나머지도 신문, 잡지 등의 검열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문헌이고 보면,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운동에 참가했던 당사자들의 목소리 또는 그들의 당시 상황에 대한 정보는 문헌에는 극히 일부만이, 그것도 상당한 정도로 왜곡된 형태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가족과 주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당시 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나는 이 점이야말로 구술을 통해 역사를 재구성하려 할 때 갖는 강점이라고 본다.

물론 면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될수록 면담의 방법, 내용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양한 사람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얻어진 내용 중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기억들, 심지어는 대립되는 기억들을 놓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사람들의 면담 결과를 세심하게 비교 분석하는 또 한 번의 작업이 요구된다. 물론 이는 앞으로 좀더 많은 이들의 면담록이 축적되면서 서서히 수행 해야할 작업이다.

그동안 면담을 하면서 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하여 검토할 몇 가지 문제를 추려 낼 수 있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3. 김연일에 대한 기억의 대립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은 단연 김연일(金蓮日)이다. 김연일은 법정사 항일운동의 주동자로서 운동을 처음부터 구상하고 조직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휘하였다. 따라서 김연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은 운동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김연일은 제주 출신으로 나중에 승려가 되는 강창규와 함께 제주로 들어왔으며, 김석윤의 소개로 관음사에 머물러 했었는데, 김석윤의 의병 활동 경력 때문에 경찰의 감시를 받는 인물이므로, 관음사에 머물지 못하고 법정사로 가서 머물게 되었다. 이러한 연고로 김연일은 법정사의 주지로 있게 되었다. 그런데 김연일은 승려임은 분명하지만, 불교 신앙을 갖고 불교 의례만 행하는 승려로만 한정 시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몇 가지 발견된다. 나는 이 점을 검토하

여 김연일을 불교 승려이면서도 당시 한창 유행하던 새로운 종교 사상의 흐름인 증산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나름대로 믿는 좀 복잡한 사상적 배경을 갖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 바 있다⁸⁾.

그런데 막상 주민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김연일에 대한 기억이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하자. 다음의 두 자료는 김연일이 일제 당국에 잡혀갔을 때 남겨진 기록이다.

濟州島 左面 道順里 法井寺 住職 金蓮日 年齡 不詳 騷擾保安法違反 懲役十年⁹⁾

金蓮日 四十八 無職 濟州島 左面 道順里 騷擾保安法違反 懲役十年¹⁰⁾

하나는 법정사 주지로 나오지만, 다른 하나는 무직(無職)으로 나온다. 어째서 두 기록이 서로 다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김연일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방진주: 김연일 스님이 제주도 와 가지고, 몇 년 살았다는 건 안 들어 봐수까?
이이열: 것도 안 들어보고, 연일 스님하고, 산방 스님하고, 방스님하고 한 건디, 방스님이 일을 저질라쨌 그자 그런 말 나 들어수다. 게난 나 안 거주. 다른것은 어린 때난 알지 못하고, 고부래 간 기억밖에 안 납니다. 옛날 해 난 건 잊어 불지 아니하고, 지금 허는 일은 윈 잊어 불니다.

방진주: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법정사 항쟁 주동이 강창규 스님, 김연일 스님, 방동화 스님 세사람이 주동이라는 거. 거기서 김연일 스님하고, 방동화 스님하고 의형제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연일 스님은 경북 연일군 스님인데... 세 사람이 주동을 했다는 것이 진실 되고, 또 하나는 법정사 연혁이 관음사로 해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도 법정사 살았어요¹¹⁾.

8) 조성윤, 「일제하 제주도의 종교상황과 법정사 항일운동」, 10-11쪽.

9) 『刑事事件簿』, 光州地方法院木浦支廳檢事分局, 1918(大正七年).

10) 『受刑人名簿』, 光州地方法院濟州支廳, 1918(大正七年).

11) 2003년 8월 16일 이이열(91세), 승려 방진주와의 면담.

승려 방동화의 아들 방진주와 가까운 신자였던 이이열은 김연일을 승려라고 말하며, 방동화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였다. 승려 방진주와 이이열 신자의 증언은 승려 방동화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기에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다른 기억도 공존하고 있다. 지금의 법정사 승려인 고미만화는 강창규로부터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김연일을 승려가 아닌 선비라고 전혀 다른 증언을 하였다.

김연일은 스님 아닙니다. 선빈다. 글을 쓰면 글이 우글우글 걸음 걷는 걸로 보인답니다. 잘 쓴다고. 나 여기 12살에 와서 사는데, 연일이 가시 아방. 모슬포 강창규라고 하는 어른은 내가 압니다. 그 어른 말이 하도 재주가 좋아 가지고, 글이 움직움직 하다가. 비우(雨)자를 쓰면 글자가 움직거리시면 오늘은 비가 딱 떨어지고, 아마 그 분이 천기를 아시는 분이.. 글만 잘 쓰는 분이 아니시고, 또 뭐하민, 살얼음이 툭툭하고 떨어질 때, 발 창에 따슬 온(溫)자 쓰면 사람들이 다 추워 죽어도 연일이가 발에 쓴 사람은 땀이 뻘뻘 난다.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강창규 조그만이 한 똥똥한 그 어른 하는 말이. 당신은 글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연일이 만든 못 하커난 죽은 사위 해 가지고, 자기 딸을 열일곱 살 난 거 줘 가지고, 사위 삼아서 ... 그 어른이 그런 말을 해. 비경 그자 뭐 공고 어는 절간에서 천리에 무인적 하고...어찌고 어찌고 해서, 그거 다 연일이한테 배워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 강창규가 그런 말을 그 어른이 불탄 문이 어딜로 어딜 가고, 어디가 괜찮다. 그런 말을 사위한테 배워 가지고... 강창규 어른이 얘기하는 김연일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선비다. 옛날 정감록 비결에 어찌고저찌고 하더라. 정씨가 어찌고저찌고, 그 옛날 역사를 많이 고라 주고는 ...¹²⁾

승려 고미만화는 현재의 법정사 주지로, 1919년생으로 12살 때인 1930년부터 법정사를 재건해서 지키고 있던 미만화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백인화는 법정사에서 가까운 마을인 회수리의 양씨 집안 며느리로 본래 성씨는 이(李)씨였다. 그녀는 불교 신자로 법정사 창건 당시부터 재물을 내놓고 활동하던 열성 신도였으며, 항일

12) 2003년 8월 11일 승려 고미만화와와의 면담.

항쟁이 발생한 뒤에도 내내 옥바라지를 했던 중요한 인물이다. 항쟁 이후 일제 당국이 법정사를 불질러 폐허로 만들어 버렸는데, 그녀는 불에 타버린 법정사 터에서 조금 떨어진 장소에 조그만 건물을 다시 지어 놓고 있었는데, 정확하지 않지만 1920년대 중반쯤으로 생각된다. 이백인화와 고미만화는 1848년 4·3 때 산에서 내려와 이백인화는 딸과 함께 월평에서 살다가 사망하였고, 고미만화는 회수에 살다가 결혼하고 지내다가 1950년대부터 다시 올라와 절을 지켜왔다고 한다¹³⁾.

승려 고미만화는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모슬포 서산사 주지로 있던 강창규가 자주 기도를 드리러 와 만났고, 강창규로부터 김연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미만화의 기억을 따르면 김연일은 승려가 아닌 선비라고 표현되는 유생이었고, 글을 잘 쓰고 도술도 부릴 줄 알뿐만 아니라 정감록 비결을 자주 들먹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김연일이 내거는 불무황제라는 표현이나 불교를 펴는 일을 하겠다는 말에서 보듯이, 비록 승려로서의 계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불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었음은 분명하다¹⁴⁾.

한편 하원리 주민들의 기억은 대체로 김연일을 승려가 아닌 유생으로 보는 쪽이었으며, 그가 정감록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으며, 도술도 부렸다는 식의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¹⁵⁾.

13) 2003년 8월 11일 승려 고미만화와의 면담.

14) 김연일이 신도들을 모아 놓고 봉기의 취지를 말하면서 “불무황제(佛務皇帝)가 출현하여 국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때 불무황제의 의미를 ‘부처님(佛: 미륵)의 권능(務)을 갖고 현실에 뛰어난 전륜성왕(皇帝)으로 풀이’하거나 김봉화의 진술 중 “법정사에 불교 신도가 많이 모였을 때 정구용은 일동에게 방동선·김연일 등은 조선 전도에 불교를 펴고 일본인 모두를 도외로 추방하여 김연일이 황제가 될 사람인데, 그는 상제의 가호가 있어 탄환을 맞는 일 같은 것은 없으며, 조금도 위험하지 않으므로 가세(加勢)하라고 말했다”(『鄭九鎔 控訴 判決文』, 1923)는 내용 등에서 보듯이 이러한 내용은 증산의 가르침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며, 옥황상제가 바로 증산을 가리킴을 감안하면 불교적인 것과 증산의 가르침이 섞여 있다는 생각이 든다.

15) 김동원: 지금 있는 법정사 땅이 아니에요. 딴 쪽에 그냥 조그만한 암자로 거기서 은거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추측 상으로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분이 거기서 은거를 해 가지고 그 분이 어떤 목적을 가져 가지고 들어왔는지 어땠는지. 그 당시에는 소위 정감록 비결이다 뭐다 한참 정감록 비결 말을 많이 할

이렇게 기억이 대립될 때 어떤 쪽의 기억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립하는 기억 양쪽이 모두 김연일의 어느 일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양자의 기억을 합쳐 놓을 때 비로소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목했으면 한다. 이는 결국 앞으로 다른 자료들을 좀더 수집해서 비교하면서 해결해 가야 할 것이다.

4. 선도교(일명 보천교)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선도교(일명 보천교)는 일제 침략기 제주도에서 강력한 전파력을 가지고 대중 속을 파고들던 종교 중의 하나로, 신비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재물 바치기를 강요하는 사악한 종교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유명한 유학자인 김석익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때거든 무슨 '도로 불근허라 산도 불근허라.'이런. 산 불근, 산에 살지마라 그 말이지. 도로 불근, 큰길 가까이 살지 말라. 큰길이쥬. ...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소위 정감록 비결에 있다 있다 하나까. 나는 그걸 본 사실도 없지만은. 2004년 2월 16일 하원리 주민 김동원, 강용규와의 면담(장소: 하원 마을 회관).

김홍주: 김연일 잡힌 디는 더대악이라고 더대오름이라고 있는데 그 앞에 몇 호 살았어요. 거기에 숨어 가지고 옛 어른들의 말에는 별자리를 보고 움직였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건 암나 모른 예감을 가져서 한 걸테주. 어떤 날은 낮에 가만히 누워서 자고, 저녁 주인이 저녁 해주면 저녁 먹어 가지고, 오늘밤에는 틀림없이 손님이 순경이 찾아올 터이니까 여기 손님 없다고 일르라고 해서 나가고, 어떤 때는 밤에 나가고, 어떤 때는 아침 조반 먹어서 딱 앉았다가 오늘 손님을 찾는 경찰이 올 테니까 그런 사람 없다고 해서 나가서 어두워서 들어오고, 이리다가 잡힌 날 아침에는 밥을 먹고 나서 두리두리하다가 하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망설이더라고, 게 얼마 없으니까 와서 일본 경찰이 와서 잡혀갔다. 그걸 어찌서 들었느냐하면 창천리가 있을 적에 주인 아줌마가 그 집에 손주며느리라. 그래서 시할아버지가 그런 소릴 하더라. ... 이 양반이 우리 집에서 잡혔다. 그런 것까지는 내가 직접. 손주한테서 들은 거난 확실한 거일테주. 잡은 것꼬지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맞지 않으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04년 2월 17일 하원동 주민 김홍주와의 면담(장소: 하원 노인회관).

정사(丁巳 1917)년에 普天敎가 처음 들어와 십여년간 몰래 활약하였다. 그 무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수만이었다. 그들은 어리석은 백성의 땅과 같은 재물을 농락하였다. 이는 사람들에게 해독을 끼치는 것으로 죄질이 아주 심한 것이다¹⁶⁾.

이러한 인식은 필자가 10여년전 신산리 주민들과의 면담 중에 들었던 이야기들과 일치한다. 동네 사람들은 보천교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것저것 다 바치고 나중에는 바칠 것이 없자, 자기 딸까지 바쳤다는 말을 하였다.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과 천지개벽이 일어나면 신산 마을 앞 바다에 섬이 솟아오르는 신비한 일이 생길 것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이른바 이적의 징표인 셈이다. 특히 주민들은 선두교가 민중의 고혈을 빨아먹고 현혹시킨다고 강조하였다¹⁷⁾.

이러한 인식에 따르면 선도교, 나중에 명칭을 바꾼 보천교에는 그야말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주로 입교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면담 과정에서 나온 다른 인식들도 만만치 않았다.

우리 일가에도 보천교 신도가 있었는데, 도포입고, 갓 쓰고, 우리 어린 때 나의 할아버지, 회수 할아버지 오신다 하면은 막 선망의 대상이 됐는데, 보천교·선도교 하면 어떻게 재산 망치는 그런 좋지 않게 봤거든. 재산도 많이 갖다 바치고 그러는 걸로. 그런데 대개 지식층이었어요. ... 선도교는 지식층들이 가는 곳이고, 돈들도 있는 집안 자녀들이고. ... 그리고 우리 어린 때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얘긴데, 그 보천교, 선도교 하는 집안에는 구기자 꽃. 가을철 되면은 빨갛게 익는 거 있죠? 그 구기자. 그거는 담쟁이처럼 아무 데나 자라거든요. 그걸로 올레에 심어서 자기네끼리 암호 연락을 했어요. 이 집안은 보천교 신도 집이다. ...¹⁸⁾

16) 金錫翼, 『心齋集』, 1990. 번역은 『근대 제주불교사 자료집』,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326쪽.

17) 조성운, 「찬물교 연구 서설」, 『현대 한국의 종교와 사회-한국 사회사 연구회 논문집 제35집』, 문학과지성사, 1992.

18) 2003년 8월 14일 무오법정사항일항쟁 성역화사업 추진위원장 이치근과의 면담.

선도교가 재산을 많이 갖다 바치게 하는 집안 망치는 종교라는 인식도 있지만, 동시에 도포 입고 갓 쓰고 재산도 있는 유생들, 말하자면 지식층이 들어가는 종교이며, 유력한 지식인들이 모여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비판하고, 독립을 염원하는 비판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한편 보천교가 민중을 현혹시키는 邪敎요 반민중적인 종교로 지탄받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일제 조선총독부 당국으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기도 했다. 특히 보천교의 교주 차경석이 한 때 天子를 자칭하고 있었고, 김연일이 불무황제를 자칭한다든가 무극대도교의 강승태가 정도령 출현을 주장한 것 때문에 일제가 탄압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민중에게는 대단한 매력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일제의 서슬이 시퍼런 상황에서 감히 天子라고 밝히고 나온 차경석을 민중은 구세주로 일제의 사슬에서 자신들을 풀어줄, 그리고 사회경제적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줄,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안겨줄 구세주로 보였을 수 있다. 보천교는 특히 강한 종말론적 신앙에 바탕을 두고 대중들에게 매력을 던지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재산 헌납임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므로 결코 간단하게 성격을 규정짓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이같은 서로 다른 인식들이 대립되어 있지만, 현실 속에서 보면 당시 유생들, 지식인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만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선도교(보천교)가 과연 어떤 형태로 제주 사회에서 움직였는지에 관해서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사 과정에서 만난 하원리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이 대정향교에 출입하는 유생들이 많은 곳이며, 이들 중에 상당수가 보천교 신자였다고 하였다. 특히 마을 유생 중에 유명했던 강응규(姜應圭)가 방주(方主)로 임명되어 한동안 정읍에 가서 살다 오기도 했는데, 그는 새벽마다 일어나 앉아 주문을 외우면서 수련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다음 증언에 담긴 주민들의 기억을 보자.

김: 어쨌든 육지에서 김연일이라는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법정에서 그 분이 완전히 주도를 해 가지고 사건을 일으킨 것은, ... 어쨌든 육지에서 그 분이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그 후에 참석한 사람들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소위 시대적으로 소위 유불선이라고 해 가지고 유교, 불교 이제 다 그렇게 지나간 거죠. 이

지방에 소위 선도라고 해 가지고 보천교죠. 보천교 선도하는 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있었어요. 여기 부락에서도 중요한 분들이 전부 선도를 하시는 분들이야. 보천교지. 보천교. 선교(仙敎)라고도 하고, 선도(仙道)라고도 하고, 실지는 보천교였죠. 보천교. 원래는 증산교지 뭐. 강증산이 불교. 증산교죠. 그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천교를 했었던 분이고, 그 뒤에 있던 분들이 거의 참여한 분들이 거의 보천교 계통에 동참한 것으로.

강: 보천교 계통 교에 놀아난 분들은 ... 한 분 있어요. 여기 강면장.

김: 그러니까 이 부락에 그 당시에 방주라고 하면 굉장한 직함이었어요. 도 전체적인 책임자가 이 부락에 있었어요. 강옹규씨라고 방주였죠. 방주면 권리행사도 상당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분의 작은 부인이 어디 분이냐 하면 개성 분이었어요. 방주를 하면서 그 또한 거시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작은 부인이 개성사람이었어요. ... 육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읍에서 방주라는 위치를 받아 가지고.

김: 그 저 작은 부인. 계속 동네에 살았으니까 계속 대화를 하죠.

강: 남원에 살았습니다. 살다가...

김: 그런 분이 방주 때문에 그 분을 흠모해 가지고 따라와 여기 와서 살다 말년 되니까 이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여기서 상당히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고, 그러한 과정은 왜 그러냐하면은 그렇게 방주가 있으므로써 여기 지방에서도 그마만큼 보천교를 믿었던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많았다는 거죠.

김: 어느 부락을 가도 보천교 믿는 사람이 우두머리우다.

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전부 식자를 많이 한 분들이 보천교를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전부 그 당시에 보면은 지방의 인테리 되는 분들이 전교(傳敎)를 행 다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천교를 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천교 믿는 사람들은 재산 다 갖다 쥐 버리니깐 망해 부렸어요.

강: 옛날 왕 부자들이 전부 거 믿었어. 경행 다 망해. 한 사람도 남김 없이. 그래서 나도 그 보니까 연말쯤 되나 몇 년에 한번 정도는 제사를 모신디 굉장했다구. 우리 먼저 집에서 해주게. 겐디 되야지 같은 거 잡으면 허딱 ... 안 행으네 딱 모셔놓은 다음에 먹는 거라. 막 부자들도 너무 낭비를 했죠.

김: 그 교회 다가 재산을 전부 바쳐 버리니까. 한 재산 있는 데로 다 받쳐버렸죠. 그래서 내중에는 보천교 한 분들이 전부 그렇게 되 버렸어요.

강: 일류들인데 전부다 망했어.

김: 그분들 공부를 한 분들이. 우리 논산 스님도 그 때문에.

강: 그 어른도 하원에서 일등 부자라. 우리 부락에 일등부잔데 말제 그 때문에 다 망했어.

김: 하낙선생, 이름은 강상옥. 그분은 종손이 되어 가지고 대대로 물려오는 재산이...

강: 강집의 재산.

김: 강집의 종손이기 때문에 쪽 물려오는 재산이 있었는데 그 보천교를 함으로써 다 바쳐 부렸죠¹⁹⁾.

법정사 항일항쟁에 관해 하원리 주민들이 기억하는 내용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들었던 것들이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김연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예외 없이 선도교(또는 보천교) 이야기로 흐른다는 점이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마을 주민들 중에 선도교 신자는 모두 유식한 사람들, 즉 유생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집안이 넉넉하고 글을 읽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천교에 들어갔다고 하는 점, 그리고 보천교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을인 하원리 뿐만 아니라 이웃 다른 마을들에도 많았으며, 그들은 대체로 마을의 중심 인물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은 재산이 많고 유복한 사람들이었는데 재산을 모두 바치고 집안이 망했다는 점등이다.

이러한 현상은 하원 뿐만 아니라 예래동이나 중문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찬가지였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유생이자 선도교인이었던 대포리 강상백은 육지 정읍 쪽으로 피신하였다가 12년 지난 후 귀향하여, 색달리 감수동에서 훈학하였는데, 경찰이 검거하여 45일간이나 심문 문초를 당하여 장독으로 사망하였다고 하였다²⁰⁾. 이치근의 증언에 의하면,

강상백씨는 식견도 있고 선도교 교인이고 해서, 불 붙여두고, 추격대가 와서

19) 2004년 2월 16일 하원리 주민 김동원, 강용규와의 면담(장소: 하원 마을회관).

20) 김봉옥, 「법정사 항일운동의 재조명」 『제주도사연구』 4. 제주도사연구회, 1995.

잡아갈 때는 피한 거 아닙니까. 지리를 잘 아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피해 다녔어. 더 이상 숨어 볼 곳이 없으니까 부인을 붙잡아다가 남편 내 놓으라고 했지. 치고, 두드려 맞고, 그렇게 했거든. ... 3개월 동안 피신하다가, 도저히 여기는 있지 못하게 되니까. 정읍 태을교 본부 거길 갔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는 생활은 안정적이니까 뒷 해에는 큰아들도 오라고 해서 10년 살았, 유효기간은 지난 겁니다. 지내서 10년 살고서는 아들과 부인을 보낸 거예요. '가봐라 이제는 괜찮을 거다.' 미리 보내두고 당신은 1년 후에 여기 왔단 말입니다. 와보니 모든 게 일본일색이거든. 도저히 큰 부락에서는 있지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관광단지 사무소 그때에 감수물이라고 해서, 그다 집에서 혼장질을 한 거라. 학동을 모아놓고, 학동은 중문권에서 도순지역, 중문 서쪽지역 색달에서 학동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는 게 들통났거든. 일년도 못해서 들통나서 시효도 지나버렸는데도, 얹혀 가서 죽게 되서 나완 45일만에 장독으로 죽었던 말이에요. 그런 처지인데 문하생들이 비를 새웠어요. 색달리 서낙 쪽에 중산간 도로로 내려가는 경계선에 있습니다²¹⁾.

강상백은 유생이자 선도교인으로 항쟁에 참여했었다. 그렇지만 강상백은 정읍으로 피신을 했기 때문에 검거되지 않았고, 따라서 재판받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보훈처로부터 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했는데, 이러한 사례는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증언 가운데 상당수는 1918년 항쟁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말하자면 항쟁 이후인 1920년대의 보천교나 1930년대의 무극대도교와 관련된 이야기도 섞여 있다는 점이다. 다음 사례를 보자.

김: 고등학교 지금 중문상고 차부하는 바로 앞에, 그다 이원옥 선생이라고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해방될 무렵에 글을 좀 읽었는데, 이 선생이 그냥 한문 선생이나 원래 보천교를 믿었.

강: 경 민영 다 망해 부러수다. 아들들도 망해 불고

김: 보천교를 항시 계속 할머니가 아침이고, 저녁이고, 낮이고 계속 주문을 읽어. 계속 읽는데 그 때 공부하면서 주문을 그자 계속 읽는구나. 할아버지는 우

21) 2003년 8월 14일 무오법정사항일항쟁 성역화사업 추진위원장 이치근과의 면담.

리 선생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할머니가 계속 읽어. 그 분은 거기서 나이도 상당히 그때는

강: 겐디 그 당시에 그 어른이 시꺼명한 밤에 딱 불경 앉아 그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문을 읽어요. 새벽에 읽어 나가지고 매일. 새벽에 주문을 읽어요.

강: 보통이 아니었죠. 그게 지금부터 백년전에 하원에서 백년도 안 됐죠. 86년 전에 나 나기 6년 전 일이지요. 그 시점에서 지식인들이라고 할만한 분들은 다 보천교 다니고 그랬던 그 시절. 다 다닌 건 아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보천교 믿는 이들은 전부 식자. 그 당시에 식자들이라고 해야 전부 지역에서 공부한 사람들인데, 향교 출입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현대 교육을 받거나 여기서는 환경이 안 되 가지고, 지역에서 훈장님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 부락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선생 있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우리 부락 말고, 훈장, 선생 많은 동네가 없어요. 문절이라 합니다²²⁾.

이 사례는 앞의 하원의 보천교인에 관한 이야기와 해방 전후 시기의 무극대도교 신자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경우이다. 하원의 보천교에 대한 설명을 하다가 자신이 보았던 해방 전후 시기 중문 지역의 무극대도교 신자 이야기를 했는데, 해방 전후 시기 제주 지역에는 보천교는 이미 소멸하고, 강승태가 세운 무극대도교 신자가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구별해야 할 것이다.

5. 맺는말

이상 간략하게 두 가지 점을 보기로 들어 지역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는 기억의 내용을 이끌어 내서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구술을 받아 보면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각기 기억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사회적 지위, 신분의 고하에 따라서, 그

22) 2004년 2월 16일 하원리 주민 김동원, 강용규와의 면담(장소: 하원 마을회관).

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내용이 각기 다른 것이 어찌면 정상인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다양한 기억들이 일단 수집되고 나면 그 면담 자료들을 활용하여 새로운 역사 서술을 해야하는데, 이 때 기존의 역사 연구의 태도, 특히 구술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학자라면 기억을 확인하고 재생하는 과정을 문헌 연구를 소홀히 하는 것이며, 지나치게 구술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보아 무척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문헌 자료를 통해서도 도저히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생생한 기억을 통해서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술을 통한 연구는 아주 매력적인 방법이다. 법정사 항일운동에 관한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 앞으로 충분한 면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가 자료로 축적되기를 바란다.